

- 사생결단 기도회 셋째 날 -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

로마서 3:10-12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는 심판,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 어떤 사람도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제공을 한 죄라는 것을 다스리고 이길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3.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람도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9)

이러한 이유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창세기 3:6-10). 죄의 지배에 사로잡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 버렸습니다. (창세기 4:16).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죄로 인해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 버렸기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숨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원인조차 모른 채 해매는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을 알고 계시고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이, “가죽옷(창세기 3:21)”이었습니다.

1.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자들의 대가는, 그들 생명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합니다. 가죽옷은 바로 그들 생명을 대신한 동물의 생명이었습니다.
2.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부끄럽게 여겨지게 된 그들의 상황,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3.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상이 드러났기에 그 죄인됨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즉,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죄로 인한 두려움, 부끄러움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1. 자기의 죽음을 대신할 생명체의 ()
2.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수행할 () (레위기 21:10-24)
3.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

하지만, 이러한 구약적 동물의 희생제사에는 다음과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1.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2.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3. 거룩하고 흠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 수 있는 ()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 안에서 허락하신 구약적 동물의 희생제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발휘하는 ()
2. 영원히 구별된 ()
3. 영원히 언제든지 제사드릴 수 있는 ()

A. 영원한 생명의 효력을 발휘하는 ()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한다면, 사람의 삶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을까요? 짐승을 구하느라 허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을 대신할 거룩하고 흠없는 짐승을 구하느라 삶은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짐승을 찾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전에 죽었던 그 짐승이 살아있다면, 다른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18-22

- 18 이렇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B. 영원히 구별된 ()

거룩하고 흠 없는 짐승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흠 없이 구별된 의인 제사장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14)
-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 27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4:25-27)

C. 영원히 언제든지 제사드릴 수 있는 ()

제사제물도, 제사장도 준비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간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 어느 영역도 죄로 인해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적 공간이 아닌 사람의 내면의 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흠이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분만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이 되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분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이 되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분만이 우리가 ()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